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저활성 사회가 남길 숙제들

경우 초기 국면에서는 중국인들이 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입국 금지를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국면에서는 신천지교회의 무언가 숨기는 듯한 행태가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이나 몇몇 요양원들이 방역의 가장 취약한 장소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후 대구와 경북의 확진자 수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주가 내민 손길은 일종의 정량제였다. ‘달빛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병상 나눔 운동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시진핑 주석도 감사의 표시를 전해 왔다. 최근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가진 노동 현장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확산 여부가 코로나 사태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은폐보다는 투명한 공개가, 혐오보다는 연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통찰력에 다시 한 번 감탄

하게 된다. 그는 일찍이 수용소와 같은 총체적 제도(total institution)와 집단적 오명에 대한 사회적 원리들을 탐구했고, 일상생활에서의 비대면 상황이나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밝혔다. 물론 그가 감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늘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시대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난 70년간 우리 사회를 움직여온 에피스테메(인식론적 틀)는 성장론적 발전 사관이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서 이것은 도전할 수 없는 규범이 되었다. 사회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상정되었고, 국가가 규정하는 질서를 비판하거나 회의적 시선을 보내면, 그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 감방에 가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우리는 처음으로 IMF 사태에서 경제가 수축되거나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국난 극복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지만, 특히 청년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규범이 오류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는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도 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제의 영역에서, 두 번째는 정치의 영역에서 발전의 신호가 꺼졌지만, 사회의 영역은 그나마 신호가 유지되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며, 어슬렁거리거나 쉬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좁고 뻣뻣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사회였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였을까.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회를 고향성 사회라고 부르고 싶는데, 이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그것과는 반대인 저활성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과 교육의 공간들이 폐쇄되고 생활공간은 개별화되고 있다. 사회가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축소되는 초유의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럴수록 그날 벌여 그날 먹고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견딜 수 없게 된다. 세계적 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 전주시가 시행하기 시작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 긴급 재정 지원’이 예사롭지 않다.

청춘 특특

코로나가 바꾼 졸업 시즌 풍경

는 상인들만 몰려 들었지만, 이들은 곧바로 넘쳐나는 재고로 발을 동동 구르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평생 한번 밖에 없는 졸업식 취소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SNS에는 학사복과 학사모 대어까지 취소된 점이 무척 아쉽다는 게 시물이 계속 올라왔다. 하지만 대학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됐다. 행사나 모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식이 취소됐다고 좌절할 청춘들이 아니다. 강당에 모여 학자지결한 학위 수여식 행사는 갖지 못했지만, 추억은 남겨야 한다. 때문에 이번 졸업 시즌에는 친한 친구와 가족끼리만 소소하게 여는 이른바 ‘셀프 졸업식’이 새로운 문화로 반짝 떠오른 듯하다. 먼저 현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추억으로 남기려는 졸업생들이 있었다. 사진을 찍는 순간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일부러 마스크를 착용하고 즐겁게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졸업 가운을 대학 인근에 있는 의상 대여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빌리는 친구들도 많았다. 졸업식 취소로 걱정하던 가운데 대여 업체는 개인 대여 손님 증가로 예상치 못하게 ‘호황’을 누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년 대비 두 배 많은 고객이 가운을 대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졸업생들 사이에서 동기애(同期愛)도 빛났다. 졸업 가운을 대여한 친구는 미처 빌려오지 못한 친구에게 기념 사진을 찍으라고 가운을 잠깐 건네 주기도 했다고 한다. 서로 친분이 있진 않지만 안타까운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이 생긴 것 같다. 또 조선대학교에서는 ‘중이 학사모’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후배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학사모 대신 종이로 학사모를 만든 것이다. 대학생다운 기발함과 발랄함이 묻어나는 장면이었다.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이 여러 언론사에 보도됐다. 운동장에서는 졸업식을 갖지 못한 아

쉬움을 더욱 감추기라도 하는 듯, 의상을 갖추고 전문가용 조명과 카메라를 준비해 더욱 ‘폼나게’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다. 굳이 학교에서 찍지 않고도 친한 친구들끼리만 스튜디오에서 오붓하게 졸업 기념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SNS에 올라왔다. 이번 졸업생들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억을 남기는 다양한 모습은 이 시대의 군상(群像)으로 남을 것 같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대학들은 졸업식과 더불어 개강을 2주 연기했는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1학기 초반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뜻밖함과 생각이 넘치는 개강의 분위기도 빼앗아 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할 뻔했던 졸업 시즌에도 특별한 추억을 곳곳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2020 학년도에도 소중한 캠퍼스의 추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원지  
조선대 문화콘텐츠학부 4학년

신종 감염병, 중앙·지방 정부 유기적 협력을

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종 플루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치명률(0.7%)은 높지 않으나, 감염 전파력이 높은 데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 플루는 다행히 빠른 시기에 치료약이 개발돼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적었다. 반면 코로나19는 아직 특화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시인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움직이고 있다. 실례로 대구시는 연일 중앙 정부에 인력·장비 등을 요청하기에 바쁜 상황이다. 경기도가 선제적인 조치를 일부 취하고는 있으나, 지방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은 특정 지역, 특정 종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앙 집중형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자체 매뉴얼에 의해 대응하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처럼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생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더욱 확

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까지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기 단계에 따라 정부가 일일이 챙기지 않더라도 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살펴보면 위기 단계별 선별 진료소 및 전담 병원 지정, 확진자 인원별 병상 확보, 경증 확진자 현지 생활 치료 센터 구축, 의료진 및 방호 용품 지원 대책, 격리 시설 확보 및 격리자 관리 담당자 지정, 격리자 식사와 생활품 공급 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의 감염병 재해대책본부에 일부 부서에 떠넘기거나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도록 일원화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 시민 착용 마스크, 의료진 방호복 등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방호 및 방역에 소요되는 물품을 사전 비축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비축 창고를 확보하고 비축 물자의 충분한 확보 등 위기 단계별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 오염·기후위기 등으로 인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은 더 많이 발생하고, 복합적인 감염병 발생도 우려되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감염병 대비 예산을 예비비나 재해 대책 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감염병 대비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행형할 수 없는 피로감이 짙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외 계층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기본 소득 지급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의 우울증 등 예방을 위해 심리 상담과 별도의 치유 공간 마련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한다. 8000여 명의 환자와 가족, 격리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격리자, 소비 위축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우리 고유의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마음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바란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기고



김주  
정읍시의회 의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코로나로 인한 ‘실업 대란’ 어떻게든 막아야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잃어 실업 급어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줄줄이 신입 사원 채용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한파가 고용 시장에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요즘 실업 급어를 신청하려는 실직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음식점업과 여행·관광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건설업이나 숙박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의 실직자들이 몰린 것이다. 실직자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내 실업 급어 신청자는 36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4%(1269명)나 급증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 급액은 244억여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3.5%(46억여 원)가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기업들은 채용 일

정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는 이달로 잡혀 있던 채용 일정을 4-6월로 미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2020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에서도 설문에 응한 126개 대기업 중 27.8%가 채용을 축소하거나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상반기 채용 계획이 축소된 기업은 32.5%나 됐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업을 중심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긴급 정책 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 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 기금 등을 활용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기업들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계 불참 ‘광주형 일자리’ 빨간불 켜졌다

광주 청년들에게 미래의 일자리를 제공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협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갑자기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노동계의 ‘투자유치 협약’ 파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고, 임원 임금을 노동자 임금의 2배 이내로 정한다’ 등의 내용을 광주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협약서 파기 이유로 들었다. 한국노총은 오늘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협약 파기 선언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 이번에 한국노총이 파기하기로 결정한 투자 유치 협약은 2018년 1월 체결된 것으

로, 광주시는 이 협약서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설립을 주도해 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시는 “끝까지 노동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각 주체가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노사민정에서 노(勞)가 빠진 만큼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한 발짝씩 양보해서, 전국 대표 노사상생형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또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진보 진영의 심장 역할을 했던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각종 전국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2002년 영남 후보 노무현을 선택, 기적 같은 정권 재창출을 이뤘고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바람의 핵심 동력이었다. 18-19대 총선에서는 거대한 보수 여권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켜 15대 국회 이후 20년 만에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 그만큼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한 걸음의 나침반 역할을 해 왔다. 이제 4·15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판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민심의 속은 변치 않다. 민주당과 야권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고집이라 할 만한 ‘오만병(病)’이 도지고 있는 모습이다. ‘공천=당선’이라는 등식 속에서 곳곳에서 과열 경선이 펼쳐졌다. 감동적 경선은 실종되고 각종 흑색선전만 난무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uim@

<p><b>光州日報</b></p>		<p>The Kwangju Ilbo</p>	
<p>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p>			
<p>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p>		<p>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p>	
<p>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p>	<p>(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p>	<p>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p>			